

제1차 2000년 연도표기문제 세미나 개최

우리협회는 한국전산원과의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9일 한국과총회관에서 각계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2000년 연도표기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수 (주)LG-EDS시스템 이사의 2000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주제발표를 비롯해서, 이밖에도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한국전산원의



송관호 본부장의 2000년 연도문제의 추진현황 설명과 주기성 두산정보통신(주) 이사의 2000년 문제 대응동향 및 사례, 강세호 삼성SDS(주) 팀장의 정보시스템 요소별 2000년 문제발생의 유형, 이홍렬 한국후지쯔(주) 팀장의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등의 발표가 있었다<사진>.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우리협회의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통신학회 박한규 명예회장과 13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인터넷인증시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 및 전문가 과정 수험료를 1차는 100,000원, 2차는 150,0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인터넷인증시험 정보검색사시험의 출제지침은 6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경험위주의 문제와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화면에 문제가 표시될 때 가능한한 두줄이 넘지 않도록 표시하고, 뉴스그룹, 전자우편, ftp, gother, WWW 등 정보탐색에 관한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응시자의 자격에 나이,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내에 특정 제품명은 포함

되지 않도록 출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총 20문제로 치루어질 예정이다.

EC 활성화 방안 협의 회의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마인드 확산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EC활성화 방안 협의회의를 지난 5월 6일 협회회의실에서 (주)LG-EDS시스템 김교덕 본부장 외 11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업체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의 돌입으로 인해 EC산업의 제반 장애요소들의 개선과 발전을 이끌 새로운 EC포럼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EC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취와 이용자 및 사업자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또 한국EC협의회를 통한 해외 유관단체(업체)와의 적극적인 교류확대와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

발표 등 EC산업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무역부문 등 일부산업에만 국한된 표준화의 범위를 전산업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부가통신산업위원회 법제도분과 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5월 15일 협회회의실에서 이길구 삼성SDS 과장을 비롯 부가통신산업위원회 위원 12명이 모인 가운데 부가통신산업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배경 및 요지의 현황 설명 및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현황 설명이 있었다. 이밖에 별정통신사업역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검토가 있었다.

멀티미디어 가전분과 운영방안 협의회의 개최

우리협회의 멀티미디어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협회회의실에서 진민호 태광산업 과장을 비롯해 멀티미디어 가전분과 참여위원 8명이 모인 가운데 멀티미디어 가전분과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협의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멀티미디어 가전분야의 현

안과 향후전망 및 주요이슈들에 대한 자유토의와 멀티미디어 가전분과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밖에 멀티미디어 가전분과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DAVIC분과 DAVIC 표준 설명회 개최

우리협회의 멀티미디어협의회 DAVIC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협회회의실에서 송관호 DAVIC 분과위원장 등 DAVIC 분과회원 33명이 모인 가운데 DAVIC 표준을 적용한 개발사례 및 HAN/B-ISDN 규격 소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영 한국전기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DAVIC 런던회의 참가결과 및 DAVIC의 최근 기술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고영화 삼성 SDS 책임연구원의 MHEG-6 저작도구 개발현황과 현대전자의 DVD기술 및 시장 동향, 그리고 박문화 성신여대 교수의 DAVIC 연동시연회를 중심으로 외국의 DAVIC 표준 적용 개발사례에 대한 발표와 황대준 서울대 교수의 원격교육을 위한 서브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수현 한국통신 국장의 HAN/B-ISDN 규격의 개요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

ICC, 정보문화의 달 심볼 및 로고 확정

한국정보문화센터(사무총장 : 정진일)는 정보문화의 달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정보문화의 달”의 심볼 및 로고 공모전의 당선작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개최되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볼 및 로고를 선정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정보문화에 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정보문화를 단순, 상징화한 심볼로 표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을 현상화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인간 교류확대와 신속한 정보전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심볼의 형태는 정보(Information)의 영문 첫글자인 “I”와 정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느낌)”, 6월 정보문화의 달을 상징하는 “6”을 표시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의 상징성, 조형성, 주목성이 특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